

기록하는 습관에 대하여



이의일 (주)세중정보기술/부회장

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자기나 남
이 개발해 둔 프로그램을 수정, 보완해 본 경험이 있
는 사람은 도큐멘테이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미 체험해
보았을 것이다. 자기나 남을 위하여 무슨 일에 대한 처음
과 나중을 기록해 둔다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
과 다름이 아닐 것이다.

한 참 전에 미국의 위성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는
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, 그 프로젝트는 위성으로부
터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을 하는 것인데 15년에서 17년간
의 데이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분석하는 사람을
위하여 도큐멘테이션을 해 둔다는 것이다. 그렇게 장기적
인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1, 2년 뒤를 위해서도 반드시
기록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.

작년에 자기가 짜 두었던 프로그램을 고치면서 누가
이렇게 짰느냐고 투덜거렸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우습지만
은 았았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.

약력 : • 68~69 대한석탄공사 • 69~74 대한조선공사 • 74~93 한국후지
프 • 현재 (주)세중정보기술 부회장 / 한국정보기술전문가협회 회장

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들렀을 적에 조선실록을 본 적이 있다. 한글이라고는 한 글자도 없는 한문 투성이여서 읽어 이해하는 것은 도대체 어려운 일이었지만, 임금 옆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록을 이렇게 촘촘히 기록해 둔 선조들이 경이로울 따름이었다. 세계에서든 사례가 없는 우리 선조들의 기록하는 습관이고, 전장에서든 전투의 내용과 자신의 의지를 꼼꼼히 기록해서 난중일기를 남긴 이 충무공이 아니었던가.

포스코의 초기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던 일본인 SE들의 기록하는 습관도 대단했다. 회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그 대강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메모해 두는 정도였는데, 그들은 그 처음과 나중을 잘도 정리해서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. 심지어 포항시내의 약도나 음식점의 차림과 맛도 잘 구분해 두어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 안내가 되도록 해 두어서, 처음에는 간첩인가고 의심도 했을 정도였다.

우리 전문가협회가 곧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. 20년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록이 태부족이라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, 우리의 기록하는 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된다. 그 때 그 때의 일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은 자기의 역사일 뿐 만 아니라 모두의 역사이고, 후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알리는 수단일 터이다. 회사에서의 업무를, 프로젝트의 처음과 나중은 물론, 자신과 관계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적어두는 습관을 이제부터라도 기를 일이다.